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01호 【루계 제25975호】 주체107(2018)년 4월 11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환희가 차넘치는 4월의 하늘가에 붉은 당기와 람홍색공화국기가 휘날리고 조선로동당찬가, 조국찬가가 끝없이 메아리치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인 총공세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고 자력자강의 위력이 힘있게 분출되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6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우리 당과 국가의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시다.

주체101(2012)년 4월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세운 력사적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를 이끄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나게 되였으며 백두의 혈통, 일심단결의 전통이 꿋꿋이 이어지게 되였다.

백전백승의 위대한 향도적력량, 강대하고 전도양양한 사회주의국가, 이것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진두에 모신 우리 당과 조국의 위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여 조선로동당의 령도적권위와 주체조선의 자주적존엄이 있고 우리 인민의 값높은 삶과 창창한 미래가 있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영웅적투쟁과 기적적승리로 수놓아진 격동의 6년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당,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세계만방에 떨쳐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가 있어 우리 혁명, 우리의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당의 강화발전과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은 령도자의 위대성에 달려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존함과 천출위인상은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을 관가리하는 력사의 광풍속에서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더욱 깊이 간직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따르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자라났으며 당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루었다.

지난 6년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필승불패성이 힘있게 과시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온 자랑찬 행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고매한 인덕에 의하여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나날이 계승과 발전, 창조와 변혁, 환희와 격정으로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지게 되였다.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치시고 당건설과 국가활동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로숙하고 완벽하게 풀어나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주체조선의 모든 승리와 기적의 원천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였기에 우리 당과 국가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과 국가로 존엄떨치고 우리 식 사회주의가 생기와 활력에 넘쳐 전진할수 있었으며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그처럼 엄혹한 시련속에서 그토록 짧은 기간에 당과 국가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국제적지위와 영향력을 비상히 강화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희세의 정치가, 세계적인 명인으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신다. 지난 6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행운과 영광을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확신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비범한 예지로 우리 당과 조국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다.

령도자의 예지는 나라와 민족의 진로를 밝히는 등불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조국을 이끌어오신 지난 6년은 탁월한 사상리론가로서의 위인적풍모가 뚜렷이 과시된 나날이였다. 시대의 변천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들은 어느것이나 다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것이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강령과 새로운 병진로선, 전당강화의 지름길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사회주의강국에 대한 정식화 등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밝히신 당과 국가건설의 고귀한 지침들에는 천재적인 예지가 빛발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우리 당과 조국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 존함으로 빛나고 이 땅우에 태양의 성스러운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은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획기적전환의 리정표로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는 우리 당과 조국의 백승의 보검이고 생명선이다. 수령의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정과 혁명승리에 대한 드팀없는 신념, 견결한 혁명적원칙성과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이 맥박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리론들이 있어 우리 당과 국가는 영원히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주체의 항로를 따라 전진 또 전진해나갈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혁명무력강화로 우리 당과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이자 당의 강화발전이며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은 혁명무력, 국방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무적의 총대로 확고히 담보해나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드팀없는 신조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전략적결단과 담대한 배짱, 불면불휴의 령도는 혁명무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치고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려세운 원동력이였다.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백두산혼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인민군대가 당중앙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을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세력도 일격에 격멸소탕할수 있는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자라났다. 최고사령관기를 휘날리며 진격의 돌파구를 용감무쌍히 열어나가는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과 기풍, 전투적기질은 온 나라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도가니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고있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안아오고있다.

우리 당의 위력, 우리 조국의 강대한 힘은 불패의 혁명무력을 가지고있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의 군대, 사회주의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격대, 바로 이것이 백두령장의 슬하에서 자라난 최정예혁명강군의 참모습이다. 오늘 우리 혁명의 시계초침은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를 따라 돌고있으며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내 나라의 푸른 하늘과 인민의 안녕을 억척같이 사수할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다. 천하무적의 혁명강군이 있기에 우리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고 우리 조국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은 끝없이 흐를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열화같은 정으로 우리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가시는 걸출한 정치가이시다.

일심단결은 당과 국가존립의 초석이며 혁명의 최강의 무기이다. 령도자의 열화같은 사랑과 정이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낳고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안아온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는 인민을 한없이 존중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늘 마음쓰시며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서사시를 수놓아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과 믿음, 의리의 세계는 수천만 아들딸들을 품어안고 생의 숨결, 삶의 박동을 더해주는 인간사랑의 세계,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영원한 동지애의 세계이다.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 거창한 작전들을 펼치시고 하늘길, 배길, 령길을 달리시여 전화위복의 기적을 안아오시였으며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고있는 조국수호의 최전방초소들에까지 나가시여 총대전사들의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뜨락과 혈연의 정으로 더욱 굳게 이어주신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온 나라에 울려퍼지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는 령도자의 사랑과 정에 끌려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인민의 한없는 격정의 분출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둘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개척자, 불굴의 투사로 위용떨치고있다. 우리에게는 목숨바쳐 지켜야 할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이 있으며 죽어도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폭속에서 영생하려는것이 천만군민의 억척불변의 신념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증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우리 당과 조국은 일심단결의 반석우에 굳건한 혁명의 전위대, 사회주의성새로 빛을 뿌릴것이다.

절세위인을 흠모하며 따르는 우리 인민의 마음은 더없이 순결하고 열렬하다. 사상리론적에지에 있어서도 최고이시고 령도예술과 인덕에 있어서도 최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광과 긍지는 끝이 없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받들어 우리 조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우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당의 령도따라 필승의 신심드높이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혁명적대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며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신념과 의리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로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정책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군,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모든 전선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지니고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혁명의 천만리길을 굴함없이 억세게 걸어나가야 한다.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사소한 요소도 절대로 용화묵과하지 말고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 한다.

우리 당을 주체혁명의 전투적참모부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의 더없는 영광과 불패성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데 있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데 있다.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지도사상으로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의 당건설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를 당의 강령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관철하며 당건설과 당활동을 오직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다.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전당이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는것으로써 당의 전투력을 백배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몸소 전당적인 대회들을 지도하시면서 당의 강화발전에서 나서는 강령적지침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모든 당조직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당건설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우리 당의 기본전투단위인 기층당조직들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오늘의 총공세는 우리 당이 위대한 인민의 힘을 믿고 펼친 거창한 작전이며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겨오기 위한 대담한 공격전이다. 온 나라에 대비약, 대혁신의 불바람이 휘몰아치고 자력자강의 승전포성이 련이어 울려퍼질 때 우리 당의 위대성이 떨쳐지고 공화국의 국력이 비상히 강화되게 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지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최후승리의 령마루를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한다.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누구나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선구자가 되여야 한다. 안일해이와 자만자족,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뿌리뽑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사업하고 생활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자체의 기술력량과 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사회주의문화의 전면적인 개화발전으로 문명강국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가야 한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 그 어디서나 만리마속도창조의 경쟁열풍이 휘몰아치고 련대적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뜻깊은 올해에 인민군대는 혁명적당군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며 전투훈련을 강도높이 조직진행하여 모든 군종, 병종, 전문병부대들을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만들어야 한다.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오늘의 총공세는 우리 일군들의 충실성과 실력이 평가되는 중요한 계기이다. 모든 일군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한개 초소를 맡겨준 당의 믿음을 한생의 재부로 간직하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높은 자질과 능력을 지니고 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쟁쟁한 실력가, 격렬한 전방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대오를 이끄는 야전형의 지휘관,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인민의 충복이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일군이다. 평양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따라배워 당정책의 정당성을 사업실적으로 증명해나가야 한다.

모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위대한 당, 주체조선의 존엄과 승리,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대의원들은 비범한 사상리론과 정력적인 령도,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대의원들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시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불패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절세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섰다.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대의원들은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대의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있음을 마음속으로 아뢰이며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대의원들은 희세의 천출위인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흠모의 정이 어린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우리 조국력사에 특기할 승리의 해로 빛내이는데 모든것을 다 바쳐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태양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업적토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토론회가 태양절에 즈음하여 에짚트, 민주콩고, 나이제리아, 네팔, 인도네시아에서 3월 29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에짚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인 에짚트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정당, 단체 인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국가건설과 조국통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으신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김일성**주석께서는 20세기 반제반미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사회주의의 사상적기초를 마련하신 그이께 경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민주콩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선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그이의 거대한 업적의 하나가 바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선에 주체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것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조국통일과 인류자주위업실현을 위해 불멸의 로고를 바치시였다.

그이의 업적은 만민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것이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를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이 실시되고 세금제도가 완전히 철폐되였다.

주석에 의하여 조선은 누구나 서로 돕고 이끄는 인덕의 대화원으로 전변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태양이 영원하듯이 그이의 사상과 위업은 길이 빛나고있다.

네팔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언자들은 사회주의조선을 말살하려고 제국주의자들은 온갖 제재압박소동에 미쳐날뛰였지만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념원대로 조선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고 말하였다.

인도네시아 라비뜨라 바흐떼라 쁘라따마회사 사장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의 한평생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의 빛나는 한생이다, 세계는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을 경탄의 눈길로 바라보고있다고 격찬하였다.

네팔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대양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가 6일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 제1비서인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위원장 돌가체브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경축 이딸리아준비위원회가 1일 로마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딸리아의 공산당 대외관계부장 알폰쏘 갈디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경축모임, 업적토론회, 영화감상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경축 몽골준비위원회 결성식이 3월 28일에 진행되였다.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김정일**화협회, 김정숙유치원, 몽골조선친선협회, 몽골—민주조선친선다리협회 등 여러 단위 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 발언자들은 **김일성**주석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이는 력사의 새시대, 자주시대를 펼쳐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격찬하고 오늘 조선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강위력한 나라로 존엄떨치고있다고 찬양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몽골조선친선협회 집행위원장 브.바이갈마가, 부위원장으로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집행위원장 요.막씸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3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업적을 칭송하는 경축모임, 토론회, 영화감상회, 사진전시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이 인솔하는 중국예술단이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게 된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 송도동지가 인솔하는 중국예술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게 된다.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첫 중국방문시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 문화교류를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합의하신 이후 처음으로 우리 나라를 찾아오는 중국의 판록있는 큰 규모의 예술단은 조중문화교류의 초석을 더욱 굳게 다지고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친선적인 린방의 예술사절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최고의 성심을 안고 특례적으로 맞이할것이다.

주체의 붉은 당기 휘날리며 전진하는 우리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4월 11일,

6년전 이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추대되시였다.

천지를 진감시킨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에 대한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온 나라를 끓어번지게 한 감격과 환희…

하늘에 닿은 인민의 간절한 소원이 성취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는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의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의 확고부동성을 내외에 엄숙히 시위하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강력한 담보를 마련한 일대 사변이였다.

못 잊을 력사의 그날로부터 6년세월이 흘렀다.

장구한 인류력사에서 순간에 불과한 6년이지만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의 존엄과 위력을 온 세계에 떨친 경이적인 행로인것으로 하여 조국청사에 특기할 빛나는 나날이였다.

세계는 그처럼 짧은 기간에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확신성있게 이끄시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세련된 정치가, 만민이 신뢰하고 우러러 따르는 우리 원수님 같으신 걸출한 령도자를 알지 못하고있다.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조선로동당,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을 혁명의 강위력한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구불멸할 업적이 집대성되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을 이끌어온 우리 당의 백승의 력사는 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으로 찬란히 빛나고있다.

우리 당을 위대한 창건자, 령도자의 존함과 더불어 존엄높고 강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당의 품속에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 끝없는 영광과 행복만을 누리며 혁명해온 인민의 간절한 념원이였고 억척의 의지였다.

주체101(2012)년 4월의 뜻깊은 날이 뜨겁게 어려온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대표자회에서 조선로동당이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이라는것을 내외에 선포하실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우리 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함과 결부되여있으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함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 존엄의 상징인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폭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이 어려와 일군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였다.

장내에 격정의 파도가 굽이치는 가운데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라고 선언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음성이 힘있게 울리였다.

그이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의 분출이였다.

력사는 수령의 옳바른 령도밑에 혁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온 당이라 하더라도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옳게 계승하지 못하면 당이 변질되고 결국에는 혁명의 좌절을 가져오게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기였다.

생각할수록 일군들의 가슴은 또 한분의 절세위인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으로 벅차올랐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계시여 우리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대를 이어 확고히 계승하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혁명적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며 로숙하고 세련된 불패의 당으로 더욱 높은 존엄과 권위를 지니게 될것이라는 철석같은 확신으로 심장이 세차게 고동쳤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앞두고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대표자회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실데 대한 결정을 채택한 력사적인 회합으로 세계정치계를 진감시켰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우리의 천만군민을 승리의 기치마냥 고무추동하는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우리 당이 영원히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고 조선로동당의 력사가 변함없이 태양의 력사로 흐르도록 하시려고 불면불휴의 사색과 로고를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충정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전하고있다.

동서고금에 세기를 이어 자기의 창건자, 령도자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혁명적당,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이 더욱 줄기차게 계승되는 불패의 당은 조선로동당뿐이다.

당의 강화발전은 그 생명의 뿌리인 인민대중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이 위대한 인민을 이끌어 불과 몇해사이에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들로 세상을 놀래운 자랑찬 로정은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백방으로 빛내여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지금도 경건히 어려온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력사적 정식화로 천만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은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만년초석으로 하여 조선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며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력사적리정표를 마련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우리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아가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정넘친 호소가 전당을 산악같이 일떠세운 경사스러운 10월의 경축광장…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정식화는 사상리론의 심화발전이기 전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뜻을 받들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결심과 의지의 선언이였다.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 이는 일군들과 당원들에 대한 요구이기 전에 자신에게 내리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장의 명령이였다.

그 강한 요구성으로 온넋을 불태우시며 인민을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나라의 산과 들에 찍으신 헌신의 자욱자욱은 그 얼마이던가.

이 세상에는 낮과 밤의 구별이 있지만 생눈길, 진창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그이의 혁명시간에는 낮과 밤, 명절날과 휴식일이 따로 없었다.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불패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솟아오르는 려명거리의 완공을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른새벽에도 건설장을 찾으시며 려명거리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고, 우리는 인민들이 좋아하고 인민의 리익을 존중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힘겨운 일이라도 무조건 해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런 정력적인 령도와 불멸의 로고속에 우리 조국에는 한해가 10년 맞잡이로 인민을 위한 훌륭한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 어디서나 위대한 당에 대한 찬가,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욱 진감하게 되였다.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끝없는 수도의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로부터 동해기슭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마식령스키장, 천도개벽을 자랑하는 서해의 최전연마을들, 라선시와 함경북도의 북부지구에 펼쳐진 눈물어린 화폭들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솟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기념비들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조선로동당의 진모습은 당이 키운 인민의 모습에 있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한 당의 위력의 원천도 인민에게 있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의 불패의 기상으로 밀려드는 제앙의 난파도를 휘어잡았던 몇해전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세차게 높뛰게 한다.

이번에 자신께서는 훌륭한 우리 인민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고, 앞으로도 자신의 영원한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는 위대한 우리 인민이라고, 조선로동당의 70년 력사에 언제나 《승리》라는 두 글자만을 아로새겨올수 있은것은 우리 인민이 우리 당을 하늘처럼 믿고 진심으로 받들어왔기때문이라고, 자신께서는 세상에 대고 우리 인민이 제일 위대한 인민이라는것을 자랑하고싶으며 이런 훌륭한 인민과 함께 혁명하는것을 긍지로 생각한다고.

주체의 붉은 당기를 높이 추켜드시고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계승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이 시각 천만의 심장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만 믿고 따르면 천사만사가 잘된다는 진리가 신념으로 더욱 굳게 자리잡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우리 당을 따라 천만리!

이것이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을 충정으로 받들어가는 이 나라 천만군민의 영원한 일편단심이다.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철의 성새를 이룬 우리 군대와 인민의 노도와 같은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

본사기자 한영민

성스러운 력사의 갈피에서

오직 장군님식대로

온 나라가 피눈물에 잠겨있던 주체100(2011)년 12월의 마지막날이였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으시고 그이의 거룩한 혁명생애에 대하여 뜨겁게 추억하시였다.

숭엄한 격정에 휩싸여있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령님의 후손들이고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가 어떻게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고 일떠서는가를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것은 자신의 확고한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1mm의 편차도 없이 장군님께서 하시던 그대로 모든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절대로 이것을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하시였다.

절세의 위인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는 뜻깊은 말씀을 새겨안으며 일군들은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확신하였다.

깊이 새겨주신 인민관

주체101(2012)년 4월 6일이였다.

일군들을 부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당조직들은 어머니된 심정으로 언제나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을 사람들의 운명도 미래도 책임지고 따뜻이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의 품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담긴 가르치심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고, 일군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은 누구나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해나갈 불타는 결의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숭고한 헌신의 세계

주체103(2014)년 1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집무탁우에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의 단면을 담은 사진들이 놓여있었다. 생선국을 마주하고 밝은 웃음을 지으며 좋아하는 아이들, 앞을 다투어 물고기들을 날라가며 설레이는 과학자가족들…

기쁨에 겨워 웃고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벅차오르는 격정을 담아 써나가시였다.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여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다고, 우리 인민들이 매일매일 이런 풍족한 생활속에 웃고 떠들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함에 우리 투쟁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들을 더 잘해나아가자고 한자한자 새기신 사랑의 글발.

멸사복무!

바로 여기에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의 의지가 어려있다.

이런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인민이 터치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는 이 땅에서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채히성

문화정서생활기지에 어린 사랑의 자욱

오늘 중앙동물원은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있어서 웃음과 랑만을 안겨주는 문화정서생활의 중요한 거점의 하나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체101(2012)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앙동물원을 찾으시였다.

이날 일군들로부터 중앙동물원의 전망계획에 대한 설명을 주의깊게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물원을 면적상으로는 더 확장하지 않아도 지금 범위안에서 재미나게 꾸릴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중앙동물원을 멋있게 꾸려 인민들에게 세계적수준의 문화정서생활기지를 또 하나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동물원의 여러곳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최소한의 부지에 최대한의 실용성과 실리성을 결합하여 꾸리지 못한 부분들을 알려주기도 하시고 동물판과 동물사들이 관람자들의 편리를 보장하면서도 동물들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잘 꾸려져있지 못한데 대하여 깨우쳐주기도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중앙동물원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일군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시였다.

중앙동물원을 잘 꾸리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문제였던것이다.

잠시후 동물원과 관련한 세계적인 실태에 대해서 알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앙동물원을 개건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동물사들에 관람을 위한 앞선 방법을 받아들이는 문제, 조류사들의 특성에 맞게 아기자기하게 설계를 고칠데 대한 문제, 지피식물을 더 많이 심어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할데 대한 문제…

중앙동물원을 돌아보시며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설계부문의 한 일군에게 중앙동물원개건을 위한 설계를 잘하여야겠다고 하시며 그러자면 여러 단위들을 참가시켜 현상모집을 하고 집체적인 협의도 하여 좋은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며 전문시공단위를 동원하여 와닥닥 해제낄데 대해서와 건설력량편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는 남들이 한계단씩 톺아올라온것을 단번에 도약하여 앞서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단번도약!

우리 인민들이 하루빨리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하며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열정과 드팀없는 의지가 얼마나 세차게 맥박치고있는것인가.

세계적수준으로 개건된 중앙동물원을 찾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발걸음소리, 풍치수려한 대성산기슭에 끝없이 울려퍼질 행복넘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일군들에게는 벌써부터 들리는것만 같았다.

오늘 중앙동물원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온 세계가 부러워할 문명강국,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래일이 멀지 않았음을 즐거운 참관을 통하여 더욱 확신하고있다.

본사기자

친어버이심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류경치과병원을 찾으시였던 때로부터 어느덧 네해가 흘렀다. 하지만 어찌하여 그날의 여운이 우리의 가슴속에 강렬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것인가.

주체103(2014)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바쁘신 속에서도 인민들이 치료받는 모습이 보고싶으시여 개원된지 얼마 되지 않던 류경구강병원(당시)에 나오시였다.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너무도 뜻밖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크나큰 행복에 휩싸였다.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꿈만 같이 그이를 뵈옵게 된 인민들의 감격은 더욱 형언할수 없었다. 그이의 품에 저저마다 안겨들며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 더 가까이에서 그이를 우러러 인사를 드리고싶어 두볼을 적시며 저저마다 그이의 품에 안겨들던 사람들…

그러는 그들에게 우리 원수님께서는 어서 치료를 받으라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자고 주시고 의사들에게 치료를 잘해주라고 따뜻이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결정체인 궁전같은 병원에서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고있다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올리는 로인들의 손을 잡아주신 그이께서는 건강하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의료봉사실태와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하루에 환자들이 몇명이나 찾아오는가, 당에서 마련해준 설비들의 상태는 어떤가, 의약품은 제대로 보장되는가에 대하여 하나하나 세심히 료해하시였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환자들과 가족들,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슨 치료를 받으러 왔는가, 어디가 아픈가를 다정히 물어보시고 그들의 병세를 세심히 알아보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원의 의료봉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는것이 얼마나 기쁘시고 믿음직한지 하시면서 류경구강병원을 건설하기를 잘했다고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날 그이께서는 당에서 류경구강병원을 일떠세운것은 인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자는데 있다고 친어버이심정으로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행복넘친 모습을 보시는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원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는 사랑의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오늘도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이 깃든 류경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날이 갈수록 어버이 그 사랑을 폐부로 절감하고있다.

그래서 인민들은 류경치과병원을 단순히 병원이라고만 부르지 않는다. 이 나라 천만자식모두를 한품에 안아 보살피는 한없이 은혜로운 어머니당의 모습과 더불어 인민의 가슴에 새겨진 사랑의 궁전이 아니랴.

본사기자 최유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조선혁명박물관과 평양시내 여러곳 참관

【평양 4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10일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였다.

대의원들은 먼저 총서관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색조각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대의원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이 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관의 여러 호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시된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앞에서 대의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국땅우에 기적의 천리마가 나래쳐오르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가 일떠서게 되였음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대의원들은 이날 대성산혁명렬사릉을 돌아보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한몸바친 항일혁명렬사들처럼 당과 수령께 충정을 다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이바지해나갈 의지를 가다듬었다.

평양교원대학을 찾은 대의원들은 훌륭히 꾸려진 교사와 도서관, 체육관 등 대학의 여러곳을 감동속에 돌아보면서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려는 당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에 새겨안고 당정책의 철저한 관철자, 인민의 참된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국제김일성상을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에게 수여하는 행사 몽골에서 진행

【평양 4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국제김일성상을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라몬 히메네스 로페스에게 수여하는 행사가 7일 몽골의 울란바따르에서 진행되였다.

행사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국제김일성상리사회 서기장,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사무국장, 리사들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아메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조직 성원들, 몽골, 일본의 사회계인사들 그리고 몽골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조선사회과학자협회대표단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국제김일성상리사회 결정이 랑독되고 상장과 메달, 기념품이 라몬 히메네스 로페스에게 수여되였다.

라몬 히메네스 로페스는 세계력사에 뚜렷한 자욱을 아로새기신 위인의 존함을 모신 국제김일성상을 수여받은것은 자신의 더없는 영광으로 된다고 하면서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널리 연구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행사에서는 국제김일성상리사회 서기장 무께쉬 샤르마,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 등의 축하연설들도 있었다.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안악군 신촌리당조직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가슴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지금 이곳 당조직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위대성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우선 일군들부터가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와 불멸의 업적에 대한 학습을 깊이있게 한데 기초하여 대중속에 들어가 해설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현장으로 나간 한 일군은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로고를 전하는 생동한 자료들을 가지고 해설모임을 진행하였다.

해설모임을 통하여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은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랑의 한평생이라는데 대하여 다시금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로농통신원 렴창성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당의 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한 투사들로

연안군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오직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와 우리 당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자면 당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제1차적인 과업으로 틀어쥐고 방법론있게 전개해나가는 연안군당위원회 사업에서 주목되는 점들을 찾아보기로 하자.

선차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당의 유일사상교양거점들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리는것을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선차적인 문제로 틀어쥐고나간것은 군당위원회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이다.

2016년전투목표를 세우던 과정을 놓고보자.

처음 전투목표에는 버섯공장개건과 모체양묘장이설, 온덕원개건보수, 읍지구의 양수장능력확장공사를 비롯하여 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일거리들이 반영되여있었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해에 그 어느때보다 많은 일거리들을 찾은것은 좋은 일이였다.

그러나 허영호군당위원장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사상교양거점들을 꾸리기 위한 전투목표가 소극적으로 세워졌던것이다.

그는 이 문제를 놓고 일군들과 토의해보았다. 올해에 계획한 일이 많은 조건에서 사상교양거점들을 단번에 다 꾸리기는 힘들것 같다는 일군들에게 군당위원장은 말하였다.

《당조직에 있어서 사상교양거점들을 훌륭히 꾸리는것보다 더 중대한 사업은 없소.》

며칠후에 열린 군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연안혁명사적관을 개건하고 6개의 령도업적단위들에 혁명사적교양실을 건설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교시판을 정중히 개건하는 등 사상교양거점들을 훌륭히 꾸리는 문제가 당결정의 첫 조항으로 채택되였다.

사상교양거점들을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군당책임일군들부터 솔선 모범을 보이였다. 군당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교시판을 정중히 개건하는데 필요한 화강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에서 백수실리나 떨어진 돌가공공장에 직접 다녀왔다. 그리고 군자체의 힘과 자원에 의거하여 450㎡의 교양마당관석을 교체하기 위한 조직사업도 짜고들어 빠른 기간에 공사를 끝낼수 있게 하였다. 읍협동농장과 룡천협동농장을 비롯한 령도업적단위들에 혁명사적교양실을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도 일군들의 실천력이 높이 발휘되였다. 군당집행위원들이 한단위씩 맡고 내려가 적극 떠밀어준 결과 도적으로 제일먼저 혁명사적교양실들을 꾸릴수 있게 되였다.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이것은 군당위원회가 사상교양거점들을 꾸리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이다.

지난해 군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개건하게 된 동기가 있다.

어느날 군당위원장은 장근옥군당부부장으로부터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의 층막공사와 관련한 제기를 받게 되였다. 현지에 나가 구체적인 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군당위원장은 간단히 보수나 할것이 아니라 내외부를 완전히 일신시킬 결심을 내리였다. 이렇게 되여 방대한 개건공사가 시작되였다.

군당위원회는 층막공사와 타일붙이기, 수십개의 창문틀교체, 해가림발과 랭온풍기설치 등 모든 공정에서 최상의 질을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은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훌륭히 개건되게 되였다.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탐구하여

군당위원회사업에서 긍정적인것은 사상교양사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한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탐구하여 구현한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우선 연안혁명사적관 강사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었다.

어느날 참관자들과 어울려 한 강사의 강의를 주의깊게 들은 군당책임일군의 생각은 깊었다. 강의내용이 이전과 다를바 없었던것이다. 같은 혁명사적자료를 해설하면서도 강의의 실효를 보다 높일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던 군당책임일군은 현실자료를 첨부할것을 발기하였다.

강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두벌농사를 잘 지어 덕을 보고있는 읍협동농장을 비롯한 령도업적단위들의 생활력자료를 강의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전 천태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접견자들도 만나보면서 강의를 보다 실감있게 할수 있는 좋은 자료들을 찾아냈다. 이렇게 하니 강의내용이 풍부해지고 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혁명업적이 더욱 부각되여 참관자들에게 주는 감흥이 컸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군안의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 관리원들의 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도록해설경연도 자주 조직하고있다.

군당위원회가 사상교양사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방도로 본것은 이동강의이다. 모내기와 가을걷이를 비롯하여 영농전투로 바쁜 시기에도 사상교양사업을 중단없이 벌릴수 있기때문이다.

조성재군당부위원장은 연안혁명사적관 강사들의 이동강의 준비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면서 방향을 그어주군 하였다. 실례로 강사들이 작업반장이나 분조장을 만나 올해 알곡생산계획이며 영농실태 등을 알아보고 강의뒤끝에 현실과 결부하여 정치사업을 하는 문제라든가 예술선동을 배합하는 문제 등은 강의의 실효를 높일수 있는 좋은 안이였다.

들끓는 포전에서 전투적으로 진행하는 이동강의는 농장원들속에서 반향이 대단했다. 지난해 가을 호서, 청화, 와룡협동농장에 나간 강사들은 농장원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9(2000)년 12월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내용을 해설해주면서 알곡소출을 높일데 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이동강의는 조건과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사상교양사업을 주동적으로, 공세적으로 중단없이 벌릴수 있어 좋았다. 또한 위대성교양이 그대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여 좋았다.

이곳 군당위원회의 사업은 사상교양사업에 대한 옳은 관점을 지니고 참신한 방법론을 찾아낼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김순영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강계세멘트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을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자로,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 한몸을 내대는 열혈투사들로 억세게 준비시켜야 합니다.》

지난해 11월이였다.

품위가 높은 원석을 채취할수 있는 장소를 새로 찾았다는 소식은 온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기쁘게 하였다. 지난 기간 원석의 질이 높지 못해 세멘트생산에서 애를 먹던 그들이였다. 질좋은 세멘트를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문제는 빨리 원석을 캘수 있는 장소를 타고 앉는것이였다. 그러자면 10여리나 되는 도로를 새로 내다싶이 하면서 수십이나 되는 굴착기를 최단기간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옮겨야 하였다.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도로 전구간을 새로 보수해야 했고 월생산계획도 긴장하였다.

공장의 실정에서 굴착기를 분해해서 옮기자면 적어도 한달은 걸려야 한다는것이 일군들의 견해였다.

이런 때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이 어려운 과업을 당원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최단기간내에 끝낼것을 결심하였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현장에서 당원협의회가 열렸다.

우리가 질좋은 세멘트를 많이 생산하여야 당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강계시를 더 훌륭히 꾸릴수 있다. 그러자면 하루빨리 품위가 높은 원석을 캐내야 한다. 얼마든지 할수 있다. 전기가 부족하면 손으로 피대를 돌리면서 전선에 총포탄을 보내주던 군자리로동계급의 그 정신, 그 투쟁본때로 일한다면 못해낼 일이 무엇이겠는가.

초급당일군의 절절한 호소는 당원들의 심장을 끓이였다.

이날의 협의회에서는 두가지 방안이 론의되였다.

하나는 굴착기를 완전분해하여 안전하게 옮기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굴착기를 세부분으로 나누어 대형화물차로 운반하자는 것이였다.

초보적으로 타산한데 의하면 첫 방안은 적어도 한달, 두번째 방안은 열흘이 걸리였다.

어느쪽을 선택할것인가.

이런 때 당원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힘들더라도 기일을 훨씬 앞당길수 있는 두번째 방안을 택했다.

이들이 대담한 발기를 하였다는것을 안 시당위원회일군들도 적극 지지해주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필요한 륜전기재도 보장해주었다. 시당책임일군이 직접 현지에 나와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료해하고 필요한 대책도 세워주었다.

이에 힘을 얻은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분발하였다. 즉시 전투가 시작되였다.

지배인의 호각소리에 맞추어 당원들은 한치한치 육중한 굴착기를 운반해나갔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가 벌어졌다. 구배가 심한 곳에는 산중턱을 깎아 도로폭을 넓히고 경사가 급한 곳에는 흙파자갈을 깔면서 전진하였다. 그야말로 힘겨운 전투였다.

아슬아슬한 고비도 있었다. 목적지를 가까이하였을 때 경사가 급한 구간에서 그만에야 고임목이 빠지면서 동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순간 당원들이 버팀목을 메고 육중한 굴착기부분품쪽으로 달려갔다. 어려운 모퉁이에 어깨를 들이밀었다. 당원들의 뒤를 종업원들이 따랐다. 그 누군가가 뗀 《적기가》의 선창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소리가 온 산판에 울려퍼졌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한달은 걸려야 해낼수 있다고 하던 굴착기를 옮기는 작업을 단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당원들이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어 당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고있는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에 의해 공장에서는 련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본사기자 최영길

대중의 심리와 특성에 맞게

명학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일군들이 사상사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사람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기초하여 사상전의 파녁을 바로 정하고 적중한 수단과 방법을 적극 활용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합니다.》

당일군들로 경제선동대를 조직하고 막장경제선동대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고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나가게 한 명학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보자.

지난 2월 막장을 돌아보던 초급당일군은 일부 갱들의 생산실적이 처지고있는데 주의를 돌리였다. 그곳 일군들은 어려워진 막장조건을 운운하면서 긴급히 대책을 세우기 전에는 실적을 올리기 힘들것 같다고 했다. 물론 난관이 있는것은 사실이였다. 그보다 더 문제로 되는것은 일부 일군들속에서 일시적인 난관에 겁을 먹고있는것이였다.

정철식초급당위원장의 뇌리에는 두해전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최고실적을 냈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무엇이 로동자들을 불러일으켰는가.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북돋아주기 위한 내용으로 일관된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의 막장경제선동이였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초급당일군은 생각했다.

어려운 때일수록 대중을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닌 정신력의 강자들로 준비시켜야 한다.

초급당일군은 당일군들로 경제선동대를 조직하고 막장경제선동을 벌리기로 결심했다. 늘 대중앞에 나서는 기동예술선동대원들보다 당일군들로 경제선동활동을 벌려나가는것이 대중에게 주는 감흥이 클것이라고 보았던것이다.

그후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노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를 가지고 막장경제선동활동을 벌리기 위한 준비사업을 짜고들었다.

이를 위해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비롯한 여러 혁명적인 도서들을 보면서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닌 혁명적신념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를 가슴깊이 새기였다.

이렇게 혁명적신념에 대한 학습을 심화시켜나가니 경제선동을 어떤 각도에서 준비해야 하겠는가에 대한 표상도 섰다.

품들여 준비한 경제선동은 첫 시작부터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경제선동은 마감에 부르는 노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이들의 경제선동을 보고난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저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당일군들이 일시적인 난관앞에 주저앉을번 한 자기들을 각성시켜주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경제선동은 대중과 교감도 아주 잘되였다.

막장경제선동을 통해 생산실적이 높아진것은 말할것도 없다. 그보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그 어떤 풍파가 닥쳐오고 천만시련이 겹쌓여도 변함없이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신념의 강자, 열혈투사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된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성과중의 성과이다.

막장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사상사업은 격식과 틀에 매이지 말고 사람들의 심리와 특성에 맞게 해야 보다 큰 실효를 거둘수 있다는 교훈을 찾았다.

본사기자 손영희

정을 주고 믿음을 주어

황해북도도시설계연구소 초급당위원회에서

황해북도도시설계연구소 초급당위원회에서 우리 당의 인덕정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설계원들을 어엿하고 훌륭하게 키운 사실들은 들을수록 감동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이 낳는 위대한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워 당중앙위원회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쌓아야 합니다.》

현재 연구소의 보배로 떠받들리우는 인재들가운데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는 심강동무에 대한 이야기는 생동한 실례의 하나이다.

그가 사업의욕을 잃고 크게 실적을 내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 제딴에 큰 포부를 가지고 제기했던 안이 사람들속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데서 온 불만때문이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를 풍선같이 붕 뜬 사람으로 단정했다. 그러자 그자신은 연구소에 대한 애착마저 없어져 다른데로 갈 생각까지 하고있었다.

그무렵 새로 사업을 시작한 김남철초급당위원장은 그의 사업을 료해해보았다. 심강동무가 제기했던 안을 놓고 깊은 사색을 기울이였다. 그 과정에 좋은 싹을 발견하게 되였다. 당시 연구소의 실정에서 당장은 실현시킬수 없었지만 발전적인 견지에서는 전망이 있었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것을 지향하고 개척해나가려는 그의 깨끗한 량심과 불타는 애국의 마음이 무엇보다 소중했다.

초급당일군은 여러 기회를 통하여 심동무가 제기했던 안을 지지해주면서 그를 적극 내세워주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설계력량이 더없이 긴장한 속에서도 그를 한달동안 인민대학습당과 평양건축종합대학에 보내여 최신설계기술을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습득하도록 하였다. 그에 기초하여 주에 1차이상 연구소의 설계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가 과학기술강의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였다. 있는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쏟아부으며 강의를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기술인재로 키워나갔고 말은 중요건설대상들에 대한 설계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황해북도안의 10여개 중요건설대상들에 대한 배치안과 형성안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완성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였다.

그 과정에 그는 자나깨나 간절히 소원하던대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대렬에도 들어서게 되였다.

그 한사람만이 아니다.

설계원으로서의 년한은 그리 오래지 않아도 쟁쟁한 실력과 실적으로 충정의 탑을 말없이 쌓아가는 사람들을 정치적평가의 제일 앞자리에 내세워주는 등 믿음과 정으로 따뜻이 품어주고 이끌어주는 초급당일군들의 손길에 의하여 연구소의 설계원들이 애국의 마음을 보석처럼 간직한 참된 지식인으로 자랐으며 재능의 꽃을 활짝 피워가고있다.

믿음과 정이 넘치는 곳에 인재가 자라고 재능의 화원이 만발한다.

우리 당의 인덕정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이것을 실천으로 확증한 연구소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은 따라배울만 하다.

본사기자 리정수

위대한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혁신적인 안목, 대담한 실천

평안남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에서

평안남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 아래 골재생산기지가 용을 쓰고있다. 이번에 골재생산기지의 능력이 크게 확장됨으로써 도안의 중요대상건설과 살림집건설에 요구되는 골재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그리하여 평성골재생산사업소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골재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특히 품을 적게 들이면서 골재생산량을 대폭 늘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중요대상건설과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골재를 자체로 충족시키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도안에는 추진중에 있는 건설대상과 올해에 새로 건설해야 할 대상들이 많았다. 때문에 골재생산기지능력을 확장하는 일은 미룰수 없는 문제였다.

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일군들은 평성골재생산사업소에 내려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는 과정에 문제점을 쥐게 되였다.

사실 지난해에 도에서는 순천메기공장을 건설하면서 골재생산기지를 꾸리는데 큰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골재생산기지가 꾸려졌고 사업소에서는 메기공장건설에 요구되는 많은 골재를 여기서 보장하였다.

그런데 골재생산기지가 대동강한복판의 섬에 자리잡고있기때문에 품이 많이 들었다. 준첩선을 가동시키고 두척의 운반선으로 골재를 실어나르자니 기름소비량이 많았던것이다.

관리국일군들은 골재생산사업소 초급일군인 김명철동무를 비롯한 생산자들과 토론을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이들은 준첩선과 운반선들을 쓰지 않고 직접 화물자동차를 리용하여 골재를 수송할수 없겠는가 하는데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이렇게 되면 원가를 줄이면서도 단위시간당 생산능률을 높일수 있었다.

그러자면 강을 가로막아 섬까지 차길을 내야 했다. 줄잡아보아도 여기에 드는 골재는 20t짜리 화물자동차 1000대분에 달하는 방대한 량이였다.

하지만 관리국일군들과 사업소종업원들은 이 공사를 단순한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관점밑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지속되는 강추위로 하여 난관이 겹쳐들었으나 이들은 자력자강의 정신을 발휘하며 결사전을 들이댔다.

살을 에이는듯 한 강추위도 애국의 열기로 높뛰는 전투원들의 공격속도를 조금도 멈춰세울수 없었다. 하루를 한달맞잡이로 드세찬 공격전을 들이대는 전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아름찬 공사는 불과 20일동안에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뒤이어 관리국일군들과 사업소종업원들은 섬의 다른쪽에 배들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게 강바닥을 깊이 파내는 전투를 벌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관리국일군들은 사업소종업원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는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사무청사와 휴게실, 한증칸이 탈린 목욕탕을 번듯하게 꾸려주고 종업원들의 생활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돌려 그들이 마음놓고 골재를 팡팡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사업소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골재생산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혁명의 지휘성원이라는 자각안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여 혁신적인 안목에서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으로 어려운 공사를 자체로 해제낀 관리국일군들의 일본새가 남다르다.

특파기자 오철훈

높은 사름률을 담보하는 빈틈없는 작전과 지휘

순안구역일군들의 사업에서

순안구역의 산림복구전투장들에서 뜻깊은 올해의 봄철나무심기가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에서 일군들이 앞장에 서야 합니다. 일군들은 사무실에서 맴돌면서 통계수자나 따질것이 아니라 인민군대 지휘관들처럼 들끓는 전투현장에 나가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구령을 치며 대중을 산림복구전투에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 성과는 당정책을 결사관철할 불같은 의지를 안고 봄철나무심기를 빈틈없이 작전하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간 구역일군들의 사업기풍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당정책관철의 기수가 될 때

산림복구전투에서 중요한것은 나무를 몇대 심었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몇대를 살렸는가 하는데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구역일군들이 나무의 사름률보장은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관점에서 산림복구전투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어 성과를 거두고있는것은 경험적이라고 할수 있다.

산림복구전투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대책적문제가 토의될 때였다. 초점을 모은것은 일군들부터 산림복구전투의 주인이라는 관점을 다시금 깊이 심어주어야 사름률을 높일수 있다는 구역당책임일군의 주장이였다. 근거가 있었다. 지난 시기에도 많은 나무를 산에 심었지만 사름률이 옹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일부 지역에는 보식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기때문이였다. 물론 나무를 잘못 심은 일부 사람들의 그릇된 일본새에도 문제가 있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일군들부터 산림복구전투의 주인이라는 립장에서 사름률보장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작전하고 지휘하지 못한데 있었다.

일군들이 찾은 교훈은 컸다. 당정책의 운명은 다름아닌 일군들의 어깨우에 놓여있으며 산림복구사업에서도 그 성과는 일군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산림복구전투에서 옹당 기수가 되여야 할 일군들이 해마다 진행하는 나무심기라고 하여 사름률보장을 소홀히 대한다면 구역의 산림조성사업을 당에서 의도하는대로 진행해나갈수 없었다.

결국 산림복구전투의 성과적담보는 나무심기에서 첫째도 둘째도 사름률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일군들이 앞체를 메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었다.

구역당책임일군은 올해의 봄철나무심기를 계기로 일군들의 마음에서부터 애국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할것을 결심하였다.

구역의 책임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라는 책임감을 안고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 섰다. 고향땅에 나무 한그루 심지 않는 사람은 고향은 물론 조국도 사랑할수 없다. 이런 관점밑에 책임일군들은 삽을 들고 한그루한그루를 깨끗한 량심으로 정성껏 심었다. 이들의 남다른 이신작칙은 일군들의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게 한 밑거름이 되였다.

완강한 실천력으로 끝장을 볼 때까지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은 일군들의 빈틈없는 작전과 완강한 실천력이 안받침될 때 더 큰 위력을 나타내게 된다.

이것을 깊이 명심한 구역일군들은 사름률을 최대로 높일수 있는 면밀한 작전을 세우고 끝장을 볼 때까지 실천해나갔다.

우선 올해 봄철나무심기작전부터 나무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보다 빈틈없이 세웠다.

새로 심은 나무들의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나무를 심을 때 부식토의 질이 낮고 토양에 물기가 충분하지 못하면 사름률을 높일수 없다. 때문에 우선 구뎅이마다 질좋은 부식토를 넣어주어야 심은 나무들이 잘 자랄수 있다.

지난 시기에는 이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과학기술적으로 똑똑히 인식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다보니 부식토의 질보다 량보장에 더 원심을 쓰는 편향이 나타났었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나무심기에 리용할 부식토의 질보장에 각별한 힘을 넣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보여주기사업도 실속있게 조직하였다.

그 실효성은 컸다.

이를 계기로 모든 단위에서는 질좋은 부식토를 생산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또한 일군들은 나무구뎅이마다 질좋은 부식토를 충분히 넣었는가를 확인한 다음 나무를 심는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이것은 그대로 높은 사름률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담보로 되였다.

일군들은 나무를 심고 밟아주기를 한 다음에는 비닐박막을 덮고 그우에 넓적한 돌을 놓아주게 하는 사업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흙을 밟아주는 방법만으로는 나무뿌리들이 마르는 현상을 완전히 극복할수 없기때문이였다. 그러나 비닐박막을 덮고 그우에 넓적한 돌을 놓아주면 토양부풀음현상이 극복될수 있었다.

결과 토양물기를 충분히 보장해주어 전반적인 사름률을 부쩍 높일수 있었다.

사름률보장을 위한 구역일군들의 작전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나무모들을 운반할 때에도 뿌리의 흙이 떨어지거나 마르지 않게 무조건 비닐박막으로 감싸서 운반하되 일단 떠온 나무모는 그날로 심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이렇게 놓고볼 때 자기 구역의 산림복구사업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면밀하게 작전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있는 일군들의 진취적인 사업기풍은 좋은 결실을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6돐에 즈음하여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6돐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이 10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판계부문, 직맹일군들, 로동자들과 직맹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강철만동지의 보고에 이어 평양무궤도전차공장 초급직맹위원장 림영남동지, 평양교원대학 교원 박은하동지, 류원신발공장 로동자 황정옥동지가 연설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1(2012)년 4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따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것은 주체혁명위업완성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된 민족사적대경사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쳐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도록 우리 군대와 인민을 손잡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승리와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혁명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여 주체의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강원도정신, 만리마속도와 같은 새로운 시대정신, 시대속도가 창조되고 주체조선의 국력을 과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으며 문명강국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리 로동계급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라는 최상최대의 값높은 칭호도 안겨주시고 직업동맹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모든 직맹일군들과 로동계급, 직맹원들이 전 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총적투쟁과업으로 틀어쥐고 나가며 직업동맹안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동맹원들속에서 5대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지도를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직업동맹을 당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추켜들고 자체의 기술력량과 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 투쟁과업들을 기어이 수행함으로써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낄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경축공연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6돐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경축공연이 10일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창엽동지, 판계부문, 농근맹일군들, 농업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설화와 노래 《김정은장군께 영광을》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실화무대 《절세위인들과 장천농장》, 녀성민요독창 《철령아래 사과바다》, 재담 《높아지니 없어졌다》, 요술 《파일풍년》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드시여 우리 당과 국가를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과 국가로 빛내여주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녀성독창 《아버지라 부릅니다》, 녀성4중창 《그 품이 제일 좋아》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관람자들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뜨거운 열과 정으로 온 나라 천만아들딸들을 한품에 안아 보살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인적풍모를 다시금 새겨안았다.

위대한 당이 펼친 휘황한 설계도따라 만리마의 속도로 비약하며 눈부신 변혁을 이룩해가는 내 조국의 벅찬 현실을 반영한 노래련곡 《인민의 환희》,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 녀성민요독창 《바다 만풍가》, 남성민요독창 《황금산타령》은 공연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희고록선동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합창 《우리의 신념》에서 출연자들은 당중앙결사옹위의 기치높이 우리의 생명이고 신념인 사회주의의 한길로 굴함없이 전진해나갈 농업근로자들의 드팀없는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더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받들어갈 불타는 열의가 맥박친 공연은 합창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선전화들 출판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선전화들이 출판되였다.

선전화들에는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인류의 영원한 태양으로 우러러모시며 위인흠모의 노래를 년대와 세기를 이어 더 높이 울려갈 축전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이 반영되여있다.

선전화들은 이 세상 제일 아름다운 노래와 춤으로 국제적인 예술축전무대를 의의있고 특색있게 장식하게 될 여러 나라의 관록있는 예술단, 교예단, 무용단 등과 국제콩클수상자들, 명배우들의 훌륭한 공연장면들을 펼쳐보이고 있다.

위인칭송의 명화들인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가 부각되여있고 축전마크가 새겨져있으며 참가단체명과 기간이 밝혀진 선전화는 이번 축전에 대한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선전화들은 인류문화발전에 또 하나의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게 될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의 분위기를 한층 돋구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단 만경대 방문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무관단이 10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유서깊은 태양의 성지를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가로 성장하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무관단 단장인 알렉쎄이 바르뚜쏘브 로씨야련방대사관 무관은 감상록에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은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곳이다,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썼다.

이날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은 만경대혁명학원을 참관하였으며 무관단은 고향집주변에서 기념식수를 하였다.

이에 앞서 무관단은 주체사상탑과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였다.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일군들 류원신발공장 참관

태양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6돐에 즈음하여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일군들이 10일 류원신발공장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공장이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는 질좋은 신발을 생산하는 표준공장으로 훌륭히 전변된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통합생산지령실, 재단직장, 제화직장 등을 돌아보았다.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대표단 도착

김정수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대표단이 1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몽골김정일화협회대표단 도착

제20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할 도르쥐고토브 쟈르갈싸이한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김정일화협회대표단이 10일 렬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여러 나라 예술인들 도착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로씨야엠.예.빠뜨니쯔끼명칭 국립아까데미야민속합창단, 몽골전군협주단, 벌가리아가극가수일행, 프랑스 알베리크 마냐르명칭 실내악단 현악4중주단, 꾸바 클라리네트독주가일행, 끼쁘로스음악단, 에스빠냐 플라멘꼬민속음악단, 타이요술단이 1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또한 이날 로씨야 첼랴빈스크주정부문화대표단, 로씨야국가교예회사 총사장일행이 왔다.

평양국제비행장과 평양역에서 축전조직위원회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대사관 성원들이 맞이하였다.

이에 앞서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성악가가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국가교예회사 총사장일행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성악가

로씨야 첼랴빈스크주정부문화대표단

여러 나라 예술인들

2018년 아시아축구련맹컵경기대회 9조(동아시아지역)경기소식 우리 나라의 홰불팀이 중국 대북의 항원팀을 6:1로 이겼다

지난 3월 7일에 시작된 2018년 아시아축구련맹컵경기대회 9조(동아시아지역)경기가 계속 진행되고있다.

9조에 속한 홰불팀과 항원팀사이의 1차경기가 10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있었다.

우리 선수들은 팀의 전술적의도를 잘 살리면서 시작부터 경기를 박력있게 운영해나갔다.

경기주도권을 틀어쥐고 높은 공다루기기술과 재치있는 2, 3인결합으로 상대팀 문전을 위협하며 확고한 우세를 차지한 우리 팀 선수들은 전반전 19분경, 36분경에 득점한데 이어 후반전에서도 4개의 골을 련이어 성공시켰다.

결국 경기는 홰불팀이 항원팀을 6:1로 이긴 가운데 끝났다.

경기는 계속된다.

에스빠냐인민공산당대표단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당정치국 위원인 반제련대성비서 마리아 떼레싸 빤또하 바르게뇨를 단장으로 하는 에스빠냐인민공산당대표단이 1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제29차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여러 나라 선수들 귀국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제29차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마로끄, 짐바브웨, 케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선수들이 10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인류의 태양을 우러러 터치는 다함없는 칭송의 노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의 력사를 더듬어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이하게 되는 뜻깊은 올해의 태양절에 즈음하여 평양에서는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성대히 진행된다.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위인칭송의 마음에 떠받들려 화창한 봄계절에 열리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세기를 이어오며 더욱 이채롭게 진행되고있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마음들이 터치는 위인칭송의 메아리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신 사회주의 내 조국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인류문예사적사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노래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경모와 칭송의 노래이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인간의 자주적인 운명개척에서 력사적인 전환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세계자주화위업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위인칭송의 대합창이다.

세상에는 력사에 이름을 남긴 위인들도 적지 않으며 그들의 업적을 전해주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나 부피두터운 저서들도 있다. 그러나 내 조국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과 같이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순결하고 아름다운 인간정서의 분출인 예술로 례찬하고 격조높이 구가한 사실은 력사에 일찌기 없었다.

돌이켜보면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이 행성우에 세차게 굽이치는 위인칭송의 열풍을 처음으로 무대우에 펼쳐놓은 인류사에 특기할 사변이였다.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새 력사를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것은 인류가 받아안은 크나큰 긍지이고 기쁨이였다.

절세의 위인들을 모신 사회주의조선의 모습에서 세계의 인민들은 세기를 두고 바라던 리상향을 눈부신 현실로 직접 보게 되였고 자주적인 운명개척의 참된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생활력을 심장으로 절감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열풍이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0돐을 계기로 더더욱 고조되는 속에 주체71(1982)년 4월 사회주의조선에서는 축전의 첫장을 뜻깊게 장식한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경축공연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박차고 새 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나라에서 온 예술인들도 있었고 사상과 정견이 다른 나라들에서 온 예술인들도 있었다. 인간생활의 따사로운 봄빛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태양의 빛발을 찾아 사회주의조선으로 달려왔고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있어본적 없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위인흠모의 축전을 펼치였던것이다. 합창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시작된 공연에서 우리 나라 예술인들과 세계 여러 나라의 예술인들은 자주시대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인류공동의 대경사로 경축하려는 한결같은 지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계절에 열리는 화려한 예술무대라는 의미만으로는 결코 그 위대한 력사적무게와 인류사적가치를 다 헤아릴수 없는 4월의 봄축전이다.

진정 조선의 봄은 자주적인 운명개척의 참된 길을 환히 밝혀준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인류의 봄이였고 우리의 봄축전은 언어와 피줄, 정견과 신앙,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심장으로 터친 위인칭송의 열렬한 격찬이였다.

축전의 나날들에 수놓아진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은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평양에 도착하는 걸음으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목청껏 불러 수많은 환영군중의 마음을 뜨겁게 격동시킨 예술인도 있었고 절세의 위인들께 온넋이 끌리여 밤을 새워가며 칭송의 노래를 훌륭히 완성한 예술인도 있었다. 화려한 무대에서 관중들의 열광적인 박수를 받고싶은 욕망이 아니라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마음을 안고 평양으로 온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가슴속에서 울려나오는 태양칭송의 찬가들은 봄축전의 무대를 더욱 아름답고 뜻깊게 장식하였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피눈물의 해인 1994년이후에도 성황리에 계속 진행되여 세인을 격동시키였다.

주체84(1995)년 4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이 축전에 참가하여 그리움의 노래, 영생축원의 노래를 심장으로 불렀다.

그후에도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경모의 정에 떠받들려 의의깊게 진행되였으며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사회주의조선을 빛내여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마음이 더욱 뜨겁게 굽이치는 국제적인 예술축전으로 우리 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오늘도 세계의 많은 예술인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흠모의 정과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친선의 마음이 어린 노래와 춤을 안고 평양으로 달려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날을 따라 젊음으로 약동하는 사회주의조선의 눈부신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대를 이어 태양을 우러르는 순결한 마음을 안고 봄축전무대에 오르고있다.

사회주의조선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결코 예술의 산물이라고만 볼수 없다.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이 넋이 있고 숨결이 있는 이 축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인간의 정신세계, 세월이 흘러도 식을줄 모르는 가장 열렬하고 순결한 인간의 감정이 흘러넘치고있다. 진정 평양의 하늘가에 울려퍼지는 위인칭송의 노래는 절세의 위인들을 영원히 따르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멈출줄 모르는 심장의 울림이며 바로 여기에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가지는 거대한 사회력사적의의가 있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규모와 내용, 진행방식에 있어서 예술축전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색있고 권위있는 예술축전이다.

참다운 예술은 인간의 아름답고 순결한 정신의 창조물이며 사회의 진보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예술의 이러한 본성적요구에 맞게 발전하고있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는 이름있는 예술단체, 국제 및 국내콩쿨수상자들을 비롯한 재능있는 명배우들은 물론 신인예술인들과 음악애호가들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제도, 재능과 실력의 차이를 뛰여넘어 누구나 다 참가하고있다. 또한 형식에 있어서도 음악, 무용뿐아니라 교예까지 다 포괄하는 예술축전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의 축전인것으로 하여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축전의 성격과 사명에 맞으면서도 여러 나라 예술단체들과 예술인들의 개성과 특기를 최대로 살릴수 있도록 조를 무어 공연하는 조별공연형식, 음악무용작품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여온 개별적인 예술단체가 단독으로 공연하는 단독공연형식, 매개 나라 예술단체들의 공연종목들중에서 우수한 종목들을 선정하여 종합적으로 공연하는 련환공연형식과 같은 다양한 형식의 공연들로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예술적품격과 수준이 아주 높다.

특히 축전은 다양하고 개성적인 세계 여러 나라들의 민족예술에 대한 리해를 풍부히 하고 발전경험을 서로 나누는 중요한 문화예술교류의 계기로서 인류문학예술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또한 민족적색채가 진하면서도 현대적인 건축술이 안받침된 웅장화려하고 특색있는 극장들은 외국의 벗들에게 언제든지 훌륭한 예술창조조건을 보장해주는것으로 하여 축전참가자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하기에 축전에 참가한 세계의 예술인들은 한결같이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두고 《규모나 내용, 형식에 있어서 최고를 이루는 독창적인 축전》, 《세계일류급의 예술축전》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 어떤 예술축전이든지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참가하는가에 따라 성격과 사회력사적의의가 평가된다고도 말할수 있다.

자주를 지향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친선과 뉴대를 귀중히 여기는 진보적인류의 마음들이 모이고모여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춤을 펼치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조선의 봄축전은 권위있고 특색있는 국제적인 대예술회합으로 공인되고있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우리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온 세계에 빛내이시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한없이 고결하고 숭고한 충정속에서 태여난 위인칭송의 대화폭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일을 인류공동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예술인들의 간절한 소망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경축공연을 국제적인 예술축전으로 전통화하고 축전의 명칭을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으로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사이의 친선을 강화하고 인류문화예술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체86(1997)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나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통하여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에 대한 긍지를 더욱 뜨겁게 느끼고있다고, 해마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조직하니 혁명의 수도 평양시가 더 화려해지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과 랑만이 넘쳐나고있다고 뜻깊게 교시하시였다.

세기를 이어 끝없이 흐르고있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의 자랑스러운 발전과정을 두고 인류는 위대한 수령을 모신 민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민족이라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새겨안고있다.

자주와 정의의 노래처럼 아름답고 진실한것은 없다.

자주적인간들이 심장으로 터치는 태양조선의 봄노래는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는 인류의 귀중한 재보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신념과 의지, 정의와 량심의 거세찬 불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기상이 세계에 높이 떨쳐지고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권위가 그 어느때보다 비상히 강화되고있는 격동적인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태양의 노래를 더욱 힘차게 부르고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힘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정의와 진리의 흐름이다.

사회주의조선이 가는 길은 정의이고 진리이며 승리이다. 주체의 조국에서 힘차게 울려퍼지는 위인칭송의 노래는 전쟁과 예속이 없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계를 건설하려는 진보적인류의 정의와 진리의 노래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하여 혁명적인 총공세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더없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승리의 노래이다.

태양의 빛과 열이 영원하듯이 인류의 태양을 우러러 터치는 위인찬가는 영원한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다.

인류력사와 함께 생겨나고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로 계승하여야 할 가장 소중한 재보를 가리켜 인류공동의 가치를 가지는 귀중한 유산이라고 하였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후세에 길이 전해가고있다.

세계인민들의 위인칭송의 열풍과 더불어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세세년년 인류공동의 영원한 재보로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우정혁

언제나 영광의 그날을 안고 살리

원산철제일용품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금속제품의 티탄도금공정 확립, 중주파유도로에서의 탈산제생산, 철제품에 수지를 결합하기 위한 수지사출공정의 자동화실현…

이것은 올해에 들어와 월마다 인민경제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면서 원산철제일용품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이룩한 자랑스러운 기술혁신성과들이다.

혁신의 그 소식들에는 어떤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지난 1월 중순 어느날 저녁 퇴근시간이 훨씬 지나 주물작업반현장으로 들어서던 지배인 리봉화동무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중주파유도로곁에서 작업에 열중하고있는 주물작업반장 박철만동무와 주물공 림철현동무가 눈에 띄였던것이다.

탈산제시험생산을 위해 며칠째 밤을 밝히는 그들의 건강을 념려하여 하루밤만이라도 집에 들어가 쉬라고 퇴근시간이 되기 바쁘게 등을 떠밀었지만 막무가내였던것이다.

열흘 갈 길을 하루 가고 말겠는가고, 자꾸 그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는 지배인에게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배인동지도 올해 세운 생산목표를 점령하는 열쇠는 기술혁신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수령님 다녀가신 공장에서 일하는 로동계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지배인은 더 다른 말을 할수 없었다.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올해에 내세운 기술혁신과제를 태양절전으로 무조건 수행하여 높은 철제일용품생산성과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려는것은 그들만이 아닌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의 드팀없는 의지였다.

원산철제일용품공장은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동해기슭의 이 크지 않은 지방산업공장에도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여 몸소 공장의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종업원들의 생활도 따뜻이 보살펴주시며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뜻대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힘있는 공장이 되자.

이런 의지와 각오를 안고 공장의 기술자들과 주물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제품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탈산제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고 련이어 건구작업반에서는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거듭되는 실패속에서도 철제품에 수지를 결합하기 위한 수지사출공정의 자동화도 실현하고야말았다.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도표의 붉은 줄들은 날마다 솟구쳐올랐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도금작업반에서는 작업장에 드리운 무거운 침묵을 밀어내며 이런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다시한번 해봅시다.》

책임기사 김선길동무의 말에 기능공들과 로동자들은 숙련된 동작으로 일손을 다시 놀리였다. 벌써 10여번이나 반복하는 티탄도금시험이였지만 그들은 만족을 몰랐다.

세계와 당당히 견줄수 있는 티탄도금제품을!

또다시 시험을 진행하는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이런 열정이 불타오르고있었다.

금속제품의 티탄도금공정 확립, 이것은 질좋고 맵시있는 철제일용품을 생산하기 위해 그들이 새롭게 수립하는 생산공정이였다.

그들은 제품 하나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름지어주신 공장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고결한 마음을 안고 지혜와 정열을 깡그리 바쳐 마침내 티탄도금공정도 훌륭히 확립하고야 말았다.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자랑찬 기술혁신성과를 이룩하며 생산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원산철제일용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이들이 오늘도 긍지높이 외우는 말이 있다.

우리 수령님 이름지어주신 공장.

누구나 쉽게 누릴수 없는 이 영광을 더 높은 생산성과로 빛내이려는 순결한 마음들이 혁신과 위훈을 안아오고있다.

본사기자 신현규

20여년에 비낀 한모습

◎ 신포시 신포고급중학교 교원 전철수동무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변함이 없어야 하며 대를 이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먼동이 터오는 이른새벽이다. 신포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주변을 정성껏 쓸기도 하고 꽃나무들에 물도 주는 그들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경건한 기색이 어려있다.

그들속에는 지난 20여년간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주변관리사업에 온갖 지성을 바쳐오고있는 신포시 신포고급중학교 교원 전철수동무도 있다.

전철수동무의 아버지는 조선인민군 군관으로 복무하였다. 여러 대회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닌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입버릇처럼 외우군 했다.

《수령을 받드는 마음은 언제나 한본새여야 한다.》

제대되여 가족들과 함께 신포시로 이사를 온 아버지는 매일 이른아침마다 어디론가 나가군 하였다. 얼마후에야 자식들은 아버지가 시에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주변관리의 길에 삶의 자욱을 내짚었다.

그 길에서 너무도 청천벽력같은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게 될줄 어이 상상이나 했으랴.

쏟아지는 폭우도 아랑곳없이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며 피눈물을 쏟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는 지금껏 얼마나 위대한 수령을 어버이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는 그의 발걸음은 어느 하루도 끊기지 않았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는 조명설비들에 한방울의 비물이라도 스며들세라 자기의 비옷을 벗어 가리웠고 눈이 오는 날이면 하루에도 몇번이나 달려가군 했다.

이런 그의 모습은 대학시절은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단에선 다음에도 변함이 없었다.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실수 있도록 많은 관리도구들과 물자들을 가져다주었으며 신포혁명사적관 개건공사가 진행될 때에는 날마다 찾아가 건설자들과 함께 헌신의 구슬땀도 아낌없이 바쳤다.

해마다 명절이 오면 전철수동무는 안해와 함께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드릴 꽃바구니를 정히 엮었고 그의 안해는 많은 꽃송이들을 마련하여 수령님의 동상을 찾는 사람들에게 보장해주었다.

그 어디에 가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주변관리사업을 진행하는것이 전철수동무의 생활에서는 어길수 없는 일과로 굳어졌다.

언제인가 10월8일모범교수자들의 모임에 참가하기 위해 함흥시에 갔을 때였다. 이른새벽마다 어디론가 나가군 하는 전철수동무의 행동을 두고 려관의 한호실에 들었던 다른 학교의 교원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얼마후에야 그가 동흥산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주변관리사업을 진행한다는것을 알게 된 교원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며 그의 뒤를 따라섰다.

그는 지난 기간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10여차례의 예술공연을 진행하고 기쁨을 드리였으며 수령님의 표창장까지 수여받은 영광을 지닌 학교의 교단에 섰다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후대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교수교양사업의 당정책화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매 학생들의 지적수준, 소질과 취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그에 맞게 학습지도를 따라세웠다.

그 나날 그가 담임했던 많은 학생들이 상급학교추천을 받았으며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 한 제자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였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져 학교를 들썩이게 했다.

오늘도 전철수동무는 20여년을 한모습으로 이어온 충정의 길에 참된 삶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재강국건설구상을 받드는 뿌리가 될 일념을 걸음걸음 가다듬으며.

본사기자 조경철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아 노래를 부른다. —류원신발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순결한 마음

증산군인민병원 치과분원 당세포위원장 김영옥동무는 높은 공민적자각을 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고있다.

매일 이른새벽이면 그의 발걸음은 군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모자이크벽화에로 향한다. 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삼가 인사를 드리고 주변관리사업을 진행하는것은 그의 변함없는 새벽일과이다.

순결한 충정의 마음을 고이 간직한 김영옥동무이기에 맡은 치료사업은 물론 남편의 뒤를 이어 무본지구에 대한 우편통신사업도 스스로 맡아하고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변함없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보건부문에서 일하면서 맡은 일에 정력을 쏟아부었을뿐아니라 군안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에 대한 이동치료활동도 적극 벌리고있다.

그 나날 그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다.

그날의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한 김영옥동무는 뜨거운 정성을 지니고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잘하는것과 함께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복무의 길을 변함없이 걷고 또 걷고있다.

로농통신원 조정호

인민사랑의 이야기를 대를 이어 전해가며

토산군 읍협동농장에서

아침에 비내려도 인민을 찾으시고 깊은 밤 눈내려도 온 나라 돌보시던 우리 수령님의 고귀한 발자취를 더듬어보느라면 그 지명만 들어도 눈물이 앞서는 고장이 있다.

토산!

이곳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8(1949)년 9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마지막 바래움을 받으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여 분계연선지대 인민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깃들어있는 곳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혁명가적풍모에 있어서나 인간적풍모에 있어서나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토산땅을 처음으로 찾아주신것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주체37(1948)년 9월이였다.

토산군 읍협동농장에는 그날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남기신 귀중한 가르치심이 현지교시비에 정히 새겨져있다.

이제는 지주도 없으니 농사를 더 잘 지어야 하겠다고, 농사를 잘 지으면 농민들의 생활이 더욱 풍족해질것이라고 하시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위대한 수령님, 그이에 대한 감사의 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관리위원장으로부터 평범한 농장원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뜨겁게 간직되여있었다.

당세포위원장으로 사업하고있는 원정심동무는 오늘도 할머니가 늘 외우던 말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이 토산땅은 너무 못사는것으로 해서 우리 수령님 마음속에 새겨져있던 고장이다. 대를 이어 농사일을 잘해서 나라를 받들어라.》

해마다 한해농사를 총화지을 때면 주석단에 앉군 하던 그의 부모들은 소문난 혁신자들이였는데 그의 어머니는 숨지는 순간까지 농장일을 도와 일손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역시 그의 부모들이 그에게 남긴 말도 《우리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귀중한 이 땅을 네 땀으로 꽃피우거라.》라는것이였다.

할머니와 부모의 그 당부를 안고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스스로 고향땅에 뿌리를 내렸다. 그만이 아닌 그들남매의 대부분이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이 뜨겁게 스며있는 읍협동농장에서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가고있다.

해방후 나라형편이 넉넉치 못하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헤아리시여 막대한 자금과 자재를 아끼지 않으시고 관개공사를 하도록 해주시였다.

발아래 출렁이는 강물을 두고도 거부기등처럼 말라터지는 논판에서 물이 없어 하늘을 원망하던 토산땅에 우리 수령님 은덕으로 림진강 푸른 물이 물길따라 굽이쳐흐를 때 인민들은 얼마나 감격에 목이 메여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던가.

토산땅에 깃든 뜨거운 사연을 대대로 옛말처럼 전해들으며 자라난 농장의 새 세대들이여서 황금나락이 물결칠 때면 그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한번만이라도 이 풍요한 가을을 보시였으면 하는것이였다.

선동원 리선화동무는 포전에서, 밭머리에서 농장원들에게 때없이 말해주군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황해북도의 수많은 단위들을 련이어 찾으시던 주체52(1963)년 2월 어느날이였다고 한다.

어느 한 지역에 들어서면서부터 차들은 속도를 죽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앞에서 달리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차가 점차 속도를 늦추었던것이다.

차가 어느 한 다리목에 이르렀을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끝내 차에서 내리시였다.

그러시고는 깊은 감회가 실린 음성으로 이 고장은 내가 잊을수 없는 곳이라고, 내가 토산지방 인민들을 잘살게 해보려고 1949년 9월에 바로 이곳에 왔을 때 혁명에 무한히 충직하였던 김정숙동무를 잃었다고 나직이 교시하시였다.

그날 그 자그마한 다리우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추위도 다 잊으시고 토산군의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문제를 두고 오래동안 뜻깊은 담화를 나누시였다고 눈굽을 적시며 그는 말끝을 흐리였다.

농장에서 제일 오래동안 일해왔다는 관리위원회 부원 신현삼동무의 추억도 뜨거웠다.

제대되여 농장에 배치받은 그는 우리 수령님께서 농장에 주신 현지교시를 먼저 가슴에 새기며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떼였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수십년세월 그는 전세대들처럼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고있다.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농경지를 확장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그만이 아닌 농장원들 누구나 밭이랑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부침땅면적을 늘이고 비탈땅 한뙈기라도 더 얻기 위하여 땀을 아끼지 않았다.

농장에서는 물론 농장원들의 가정들에서도 집짐승을 많이 키우고있는데 그것 역시 무축농가를 없애야 한다고 하신 우리 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농사에서 군적으로도 앞선 자리를 차지한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올해에도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풍년을 마중가고있다.

인민이 사는 어디서나 들려오는 우리 수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만대를 두고 전하여도 끝이 없거니,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토산땅에 꽃펴날 인민사랑의 새 력사는 또 얼마나 벅차고 아름다울것인가.

본사기자 조향선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시고

절세위인의 숭고한 민족애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이 끝없이 불타오르는 4월이다.

해마다 4월이면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해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한생을 더욱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으며 민족의 숙망을 실현하는 길에 한없이 고귀한 업적을 남기시였다.》

한평생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의 자욱자욱을 새겨오신 우리 수령님께서 자나깨나 늘 마음쓰신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조국통일이였다.

오늘도 우리의 귀전에 쟁쟁히 울려온다. 주체61(1972)년 5월 어느날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어느 한 나라의 기자들에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절절한 교시의 구절구절이.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조국의 통일이라고, 조선인민은 한피줄을 이은 단일민족이지만 아직 조국이 통일되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통일이 되면 우리 민족은 남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다고,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근면하고 슬기로운 인민이며 북과 남의 전체 인민이 힘을 합쳐 투쟁한다면 나라의 통일도,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도 이룩할수 있다고 확신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나라와 민족의 분렬로 인하여 우리 인민이 당하는 고통을 가장 큰 아픔으로 여기신 어버이수령님이시기에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그토록 절절하게 교시하시였던것이다.

묻노니 사람들이여,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이어가신 끊임없는 사색의 낮과 밤, 걷고 걸으신 길에 얼마나 많고많은 사연들이 깃들어있는것인가.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제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정력을 깡그리 바쳐오시고 회의를 지도하시면서도, 농장의 포전길과 건설장의 밤길을 걸으시면서도 조국통일을 앞당길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주체63(1974)년 여름 어느날에도 조국통일문제를 놓고 심려의 한밤을 지새우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새벽 4시경 전화로 한 일군을 찾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전화를 받게 된 그 일군은 《수령님! 아직도 주무시지 않으십니까?》라고 격정어린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그러는 일군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쩐지 잠이 오지 않는다고, 백두산에서 싸울 때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지금은 나라를 통일시키지 못했으니 더 못 자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할 일을 다 못했다고, 반드시 우리 손으로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그토록 심려하시며 새벽이 밝아오는 그때까지도 쉬지 못하신 어버이수령님,

그렇게 통일을 생각하시며 지새우신 밤은 그 얼마이며 조국의 통일위업실현을 위해 이어가신 길은 또 그 얼마였던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을 위해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자신의 탄생일에 온 겨레와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축원의 마음이 차넘치는 축배잔을 받으신 자리에서도 민족의 절반을 남에 두고 이 잔을 들자니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며 쓰라린 마음을 달래지 못하시였겠는가.

조국의 남녘땅을 생각하면 지금도 백두산에 서있는 기분이라고, 밤이 되면 남조선인민들생각이 더 난다고 하시며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사색과 령도로 민족자주위업, 조국통일위업을 줄기차게 이끌어오신 우리 수령님의 그 위대한 로고와 헌신의 낮과 밤이 있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같은 조국통일의 굳건한 초석이 마련되고 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애국운동으로 확고히 전환될수 있었다.

갈라져 사는 민족의 아픔을 한몸에 안으시고 하루빨리 남녘동포들의 불행을 가시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심장을 불태우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친필도 바로 조국통일과 관련된 문건에 남기시였다.

정녕 우리 수령님처럼 민족의 운명을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다가 집무실에서 순직하신 그런 위인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하기에 오늘 우리 겨레는 누구나 조국통일이라는 말을 외울 때면 그를 위해 바치신 절세위인의 로고와 불면불휴의 헌신의 자욱자욱을 눈물속에 돌이켜보며 어버이수령님을 절절히 그리고있는것이다. 그리고 그이의 간곡한 유훈을 언제나 잊지 않고 시련과 난관을 뚫고헤치며 필승의 신심드높이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결심을 굳게 다지고있다.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한평생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하여 자신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신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오늘 우리 민족은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것으로 하여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확신하고있다. 올해신년사에서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갈것이라고 온 세상에 힘있게 선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웅대한 뜻과 억척불변의 통일의지에 따라 북남관계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우리 겨레는 70여년전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고 환호하는 인민들앞에 나서신 우리 수령님을 우러러 감격의 만세를 터치던 그때처럼 조국통일의 광장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온 겨레는 한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대대손손 전해갈것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애국애족의 보폭에 발을 맞추며 그이의 령도따라 자주통일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것이다.

리 홍 철

한강반에 새겨진 《설악산의 전설》

주체39(1950)년 8월 내각청사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였다.

당시 서울시민들의 땔나무문제를 회의의정으로 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제의에 회의참가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도그럴것이 전쟁이 한창인 때 그것도 삼복더위속에서 서울시민들의 겨울철땔나무문제가 상정되는것은 누구에게나 천만뜻밖이였던것이다.

사실 그때 서울시민들의 생활에서 제일가는 고충이 땔나무문제였다. 겨울에는 땔것이 없어 농짝이며 빨래방치, 지어는 밥상까지 다 패때고도 얼어죽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를 가슴아파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울시민들이 공화국의 품속에 안긴 오늘까지 이전과 같이 고통을 당하게 할수는 없다고, 땔나무문제도 예견성있게 풀어주어야 한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나무가 많고 서울에서 가까운 태백산에서 땔나무를 하면 헐할수는 있겠지만 지지리 고생하다가 공화국의 품에 안긴 남녘동포들을 또 고생시킬수 없다, 힘들더라도 북반부인민들의 손으로 나무를 해보내주어야 한다시며 친히 한강상류와 잇닿은 설악산을 나무베기전투장으로 지정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인민군대에 탄원한 수백명의 청장년들까지 동원시켜주시고 전시환경에 맞게 나무를 강물에 띄워 인민들이 건져쓰도록 그 방법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하여 한강으로는 수십만㎥의 땔나무가 떠내려왔고 서울지역 인민들은 민족의 어버이의 따뜻한 사랑속에 엄혹했던 그해 겨울을 후덥게 지낼수 있었다.

한강반에 새겨진 《설악산의 전설》은 이렇게 태어나 남녘인민들의 마음을 오늘도 뜨겁게 달구어주고있다.

남녘겨레들을 잊지 못하시며

주체55(1966)년 여름에 있은 일이다.

당대표자회에서 하실 보고를 준비하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날 밤 자정이 가까와올무렵 회의준비사업을 하는 일군들의 숙소를 찾아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애에 넘치신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루에 몇시간씩 자는가, 생활에서 불편한것이 없는가를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창문밖을 바라보시며 나는 밤이 되면 남조선인민들생각이 더 난다고, 아마도 밤에는 생각이 더 깊어지는 모양이라고, 어쩐지 남조선인민들생각만 떠오르면 가슴이 아프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전쟁때 서울에 나가보았는데 참 감회가 깊었소, 전쟁이니만치 나는 그때 서울동포들에게 인사의 말도 한번 못했소라고 추억깊은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해방직후 서울사람들은 역전광장에 모여 김일성장군님께서 서울에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밤을 지새웠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런 말을 자신께서도 들었다고, 자신께서는 아직 조국개선의 인사도 남녘동포들에게 하지 못했다고, 조국통일의 인사를 겸해서 해야겠는데 분렬의 력사만이 깊어가고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고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날씨를 알아보시고도

주체54(1965)년 7월 초순의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무렵에 례년에 없는 왕가물이 계속되는것이 걱정되시였다. 하여 그이께서는 자정이 훨씬 지나 기상수문국의 한 일군에게 전화를 거시여 날씨가 지금 흐렸는데 어디서 오는 저기압인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서운하신듯 남쪽에서 오는 저기압이 아니구만 라고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에게 이번 저기압이 우리 나라 전반지역에 다 미칠것 같은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저기압세력이 약해 중부조선까지나 미칠것 같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곤난하구만라고 하시며 안색을 흐리시였다.

일군은 그이께서 무엇이 곤난하다고 하시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의 심중을 헤아려보신듯 저기압이 중부조선까지만 미친다는데 남녘동포들도 밥을 먹어야 할것이 아닌가고, 거기도 두달이나 가물었다고 심려깊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얼마나 남녘동포들을 위하시고 걱정하시였으면 왕가물로 하여 안타까울 그들의 심정까지 헤아리시였겠는가.

일군은 뜨거운것을 가까스로 삼키였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은 남녘동포들을 친자식처럼 걱정하시며 민족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가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다.

본사기자 엄 수 련

입건사를 잘하는것이 상책이다

일본외상 고노가 어느 한 강연회라는데서 《조선의 매력공세에 성급하게 반응해서는 안된다.》느니,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다.》느니, 《조선에 리용당할수도 있다.》느니 하고 입부리를 마구 놀려댔다.

고노가 왜 이런 요설을 늘어놓았는가.

일본의 《아사히신붕》은 자기 나라가 《동북아시아지역의 외교열풍속에서 고립될가봐 매우 우려하고있다.》는 보도를 날렸다. 일본국회 중의원의 한 의원은 정부의 무능력에 대하여 몹시 언짢아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외토리로 남아있는데 대해 국민들은 근심하고있다고 불부은 소리를 하였다고 한다.

결국 일본외상 고노의 나발은 지역정세흐름의 변두리로 밀려난 섬나라족속의 궁색한 푸념질에 지나지 않는다.

명백히 말하건대 일본은 우리 공화국을 중심으로 하여 급변하고있는 정세흐름에 의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고립되는데 대해 불안해하고있다.

내외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하여 안정과 완화를 지향하는 대세의 흐름은 더욱 확고해지고있다.

지금 조선반도문제에 리해관계가 있는 관련국들은 모두 긍정적인 지역의 정세발전에 합류하기 위하여 외교적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국제사회가 우리의 통이 크고도 과감한 대외정책적결단과 노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일본만이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지 못하고 본전도 못 찾을 대결나발을 계속 불어대고있다. 그러니 시대감각이 무디고 사고가 궁색하기 이를데 없다는 내외여론의 핀잔밖에 들을것이 없다.

일본당국자들이 얄팍한 세치 혀바닥을 주책머리없이 놀려대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궁지에 몰린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년초부터 조선반도정세가 완화에로 방향을 틀기 시작하자 벼락이나 맞은것처럼 덴겁을 하며 집요하게 원새끼를 꼬아댔다. 일본정객들은 조선의 《미소외교에 헛눈팔지 말라.》느니, 《시간벌이》니 하며 《최대의 압력》나발을 념불처럼 주어섬겼다.

아베세력은 미국의 대결정책에 부채질을 해대며 정세흐름을 격화에로 되돌려세워보려고 갖은 잔꾀를 다 부리였다. 대조선압박공조를 노린 비루한 구걸질도, 파렴치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현해탄을 건너와서까지 남의 대사에 재를 뿌리며 돌아쳤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격화에서 어부지리를 얻군 하는 일본반동들의 교약한 악습의 발로였다. 아베패당은 좋게 흘러가는 조선반도정세흐름을 대결에로 돌려세우고 그를 구실로 헌법개악과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발광하였다. 그때문에 아베의 잔등에는 《돈 끼호떼》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싼쵸 빤싸》라는 락인이 큼직하게 찍혔고 일본외교는 구걸외교, 협잡외교로 조소를 받았다.

비극은 아베패당의 헛된 야망이 일본을 고립무원한 처지에 빠뜨렸다는데 있다. 그들은 전전긍긍하고있다.

고노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 《리용당할수 있다.》고 아무리 양탈을 부려야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외토리로 된 저들의 처지에 대한 자체불만의 토로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누구를 탓할것도 못된다.

속담에 공은 닦은데로 가고 죄는 지은데로 간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이미 일본의 경망스러운 반공화국대결언동을 두고 쑥대끝에 매달린 민충이처럼 건들거리다가는 영원히 평양행 차표를 구하지 못할수 있다고 충고한바 있다.

일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공화국대결나발을 불어대고있다.

시대감각이 무딘 미련한 속구구로 하여 일본은 격변하는 지역정세흐름의 기슭으로 점점 거품처럼 밀려나고있다.

일본에 있어서 어느모로 보나 유익한것은 요망스러운 입건사를 잘하는것이다.

리 효 진

대세에 역행하는 량면술책의 발로

얼마전 남조선당국이 미국에 추종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그 무슨 《제재결의》위반이라는 간판밑에 우리 선박들과 운송 및 무역회사들을 제재명단에 추가한것을 지지해나서는 추태를 부리였다.

남조선당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명단추가놀음에 대해 《제재결의의 충실한 리행의지》를 보여준것이라고 추어올리면서 미국의 비위를 맞추느라 극성을 부리였다.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각본에 따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명단추가놀음을 지지해나선것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화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평화와 안정에로 지향된 현정세국면에 도전해나서는 온당치 못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외세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대한 동조는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기마련이다. 이것은 곡절많은 북남관계사가 새겨준 교훈이다.

지난 시기 리명박패당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극구 추종하면서 상전과 야합하여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미쳐날뛴것으로 하여 6.15의 기치밑에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된서리를 맞고 나중에는 파국을 면치 못하였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리명박패당은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에 편승하여 북남사이의 래왕과 협력을 전면차단하는 악명높은 《5.24조치》를 발동함으로써 북남관계를 무참하게 잘랑쳐놓았다.

리명박《정권》의 뒤를 이은 박근혜패당도 민족공조가 아니라 외세와의 공조를 추구하고 미국과의 《동맹》강화에 기를 쓰고 매달리면서 북남관계파괴책동에 열을 올리였다. 특히 역도패당이 국제적인 《대북압박공조》에 대해 고아대며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동족대결광기를 부리고 그 무슨 《독자제재》에 대해 떠벌이면서 북남협력의 마지막상징이였던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한것은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냈다.

남조선보수패당의 범죄적인 동족대결망동으로 하여 엄중한 파국에 처하였던 북남관계는 지금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있다.

우리의 애국애족적의지와 주동적인 노력으로 하여 불신과 대결로 얼어붙었던 북남관계에서 화해와 단합의 눈석이가 시작되였고 조선반도에는 긴장완화의 국면이 조성되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우리의 따뜻한 동포애와 그로 하여 대화와 화해의 기운이 높아가는 현 북남관계의 현실앞에서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적극 살려나감으로써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것이 온 겨레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북남관계개선은 그 누구도 외면할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며 대세의 흐름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당국은 여전히 외세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추종하면서 구태의연하게 놀아대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귀중하며 북남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곧잘 외우고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은 서로 다르다. 이번에 남조선당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명단추가놀음을 적극 지지해나선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대미추종의 낡은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명단추가놀음에 대해 《제재결의의 충실한 리행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그에 덮어놓고 박수를 보낸것은 겉으로는 동족앞에서 웃음을 짓고 속으로는 딴꿈을 꾸는 량면술책의 뚜렷한 발로이다.

앞에서는 우리와의 화해와 평화를 운운하고 돌아앉아서는 외세와의 반공화국압살공조를 추구하는 이중적인 처사는 북남관계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한 망동은 대화일방에 대한 기만우롱일뿐아니라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된다.

남조선당국은 겨레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북남관계개선에 방해가 되는 량면술책을 걷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은 정 철

남조선단체 4.3인민봉기를 모독하는 보수언론들을 규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제주4.3사건 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5일 4.3인민봉기의 진실을 외곡하고 미국을 비호하는 보수언론들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4.3봉기의 진실과 정의를 외곡하고 단체가 범민련남측본부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이 주최하는 미국규탄대회에 참가하는것을 비난한 《문화일보》,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언론들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70년동안 아무런 사죄도 없는 미국에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30여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미국규탄대회에 참가하여 련대하는것이 무엇이 잘못되였는가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제주4.3봉기는 해방후 제주도민들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이 없었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봉기라고 하면서 성명은 미군정이 봉기진압을 결정하고 미군사고문단이 대량학살을 지휘하였다고 까밝혔다.

보수언론들이 이미 폐지되였어야 할 《보안법》을 근거로 범민련을 《리적단체》로 몰며 사회적운동에서 배제시키려 한다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수구언론들의 작태는 4.3봉기의 진실을 외곡하려는 못된 속심에서 출발한것이라고 하면서 봉기의 정신을 헐뜯는 행위를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였다.

성명은 4.3봉기의 아픈 상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보안법》과 같은 반인권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리명박역도 재판에 기소

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9일 특급범죄자 리명박역도가 재판에 회부되였다.

이날 검찰당국이 리명박역도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찰은 리명박역도가 다스의 실소유주이며 그에게 뢰물수수, 불법자금횡령, 탈세, 직권람용,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 16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남조선에서는 전두환, 로태우, 박근혜역도에 이어 리명박역도까지 4명의 전직《대통령》들이 반인민적악정과 부정부패범죄행위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되였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구제역 또다시 발생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2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이날 하성면에 있는 한 돼지목장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구제역이라는것이 판명되였다. 김포시에서는 지난 3월에도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청소년문제를 통해 본 지옥과 락원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를 일삼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의 우환거리로, 화근으로 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유럽과 아메리카지역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청소년들의 집단범죄가 성행하고있다.

력대적으로 청소년범죄가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는 미국은 집단범죄기록건수에서도 앞선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로스안젤스는 청소년범죄집단이 너무도 많아 《깡패집단의 도시》로 불리우고있다. 이들속에는 다른 나라의 마약범죄집단과 손을 잡고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도 있다.

거리와 학교 등지에서 세력을 확대하고있는 영국의 청소년범죄집단은 멋모르는 철부지 어린이들까지 범죄에 끌어들이고있다.

이들에게서 찾아볼수 있는 공통점은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악명높을뿐아니라 마약밀매와 모살을 일삼고있는것이다.

지난 시기에는 집없는 떨떨 청소년들이 생존을 위해 집단범죄를 저질렀다면 지금은 대부분이 커다란 경제적목적을 노리고 서로가 무리지어다니며 범죄를 감행하고있다. 집단적인 행동의 째임새도 엄밀해지고있는 등 조직적성격이 뚜렷한것이 특징이다.

마약범죄가 우심하게 감행되고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마약소비국인 미국에서 청소년들의 마약사용률이 높아가고있다.

미련방질병통제쎈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살이상의 청소년들속에서 헤로인사용자수가 63% 늘어났으며 사망자수는 3배로 늘어났다.

미국의 대학들에서는 마약사용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대학기숙사에서 정상적으로 마약을 사용하고있다.

청소년범죄의 일종인 교정에서의 폭력행위 또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례상사로 되고있다. 위협과 공갈, 싸움, 강탈, 절도, 강간 등 각종 범죄가 학교들에서 빼짓이 감행되고있는 판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일평균 2 000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행위의 피해자로 되여 병원에 실려가고있다. 또한 4분의 1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총기류에 의한 폭력사건에 가담하였거나 그 피해자로 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 세워진 말썽많은 총기류소유제도는 청소년범죄를 더욱 조장시키는 근원으로 되고있다.

2015년 10월에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한 대학에서는 총격사건이 벌어져 10여명이 죽고 2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학교들에서 총격사건을 비롯한 엄중한 범죄행위외에도 각종 학대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2016년 4월 영국의 13살 난 중학생소녀가 30명의 학생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였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학생들은 구타를 말릴 대신 그것을 촬영하고는 인터네트에 올려 전파시켰다.

일본에서도 학대사건들이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그로 하여 많은 학생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고있다. 일본의 후꾸시마현에서는 고급중학교 2학년 녀학생이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은 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와사끼시의 한 중학교에서도 3명의 고급중학교학생들이 13살난 하급생을 모욕하고 구타하다가 종당에는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의 살인수법을 모방하여 그를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본정부가 발표한 《청소년백서》에 의하면 이 나라에서 거의 90%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대를 받은적이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인권》과 《문명》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어대는 자본주의사회의 현 실태이다.

바다물을 다 마셔보지 않아도 한방울이면 짠맛을 알수 있다. 몇가지 자료들을 통해서도 자본주의나라들의 청소년범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를 똑똑히 알수 있다. 약육강식의 생활방식과 패륜패덕의 사회악이 판을 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정신적불구자, 기형아들로 전락되여가고있다.

현실은 자본주의사회야말로 미래가 없는 사회, 무덤으로 가는 반동적사회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말세기적풍조가 범람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국가와 사회의 골치거리로 되고있을 때 우리 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이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미덕의 주인공, 위훈의 창조자들로 성장하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우리의 청소년들속에는 무더기비에 의한 사태로 집이 무너질 위험이 조성된 순간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목숨을 바쳐 보위한 14살의 녀학생과 부모잃은 아이들을 말아안아 키우는 《처녀어머니》도 있다.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꽃피워나갈 일념안고 수도 평양과 정든 고향을 떠나 서해의 최전연섬초소와 산골마을학교들에 자원진출한 처녀들도 있다.

또한 발전소건설장과 탄광들을 비롯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어렵고 힘든 곳에서 청춘의 구슬땀을 흘리며 위훈을 떨치고있는 청년들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청년들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이는데서 선구자가 되고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시대어와 더불어 우리 청년들의 긍지와 존엄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이다.

실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조선청소년들의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이며 그들의 인생을 빛내일수 있게 하는 진정한 어머니품이다.

본사기자 라 명 성

중국외교부장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을 비난

중국외교부장 왕의가 5일 로씨야방문과정에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을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미국우선주의》를 내걸고 다른 나라들에 빈번히 무역전쟁을 도발하는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이며 로골적인 경제패권으로 된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미국이 보호주의로 리속을 채우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타산이다, 미국이 중국에 무역제재의 몽둥이를 휘두르고있는데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고 말하였다.

국제사회는 규칙을 무시하는 이러한 일방주의적인 행위를 공동으로 억제하고 모처럼 마련된 세계경제의 장성추이를 수호하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미국의 일방주의적행위를 반대할것을 호소

이란외무상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가 5일 뿔럭불가담운동 외무상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세계적범위에서 감행하고있는 미국의 일방주의적행위를 저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뿔럭불가담운동이 다국적인 결정들을 채택하는데서 계속 선도적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 공동보조를 취할것을 운동성원국들에 호소하였다.

그는 정의롭고 공정한 국제질서와 세계적인 민주주의관리체계수립을 위해 성원국들이 적극 노력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에서 반미시위

일본의 요꼬다미공군기지앞에서 5일 반미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주일미군이 기지에 수직리착륙수송기 《CV-22 오스프레이》 5대를 급작스레 끌어다놓은데 대해 항의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많은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오스프레이는 안된다》 등의 글들이 씌여진 프랑카드들을 들고 수송기가 국내와 해외에서 치명적인 추락사고를 줄줄이 일으킨 사실을 까밝히면서 수송기의 안전성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미군부에 따질 립장을 강조하였다.

에티오피아수상 정부앞에 나선 과업에 대해 언급

에티오피아수상 아비이 아흐메드 알리가 2일 취임연설에서 정부앞에 나선 과업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정부가 정치적안정과 보다 단결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립장을 표시하면서 무엇보다먼저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민족의 화해, 단합을 강화하며 부정부패반대투쟁과 교육발전사업에 힘을 넣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대외정책을 계속 실시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총기류범죄

뛰르끼예의 에스끼쉐히르주에 있는 한 종합대학에서 5일 류혈적인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였다. 이날 대학의 한 연구사가 동료들을 향해 마구 총사격을 가하여 4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한편 프랑스의 마르세이유에서도 총기류범죄로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조선중앙통신】

ㄱ-81057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